

30.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9월 10일
- 제출자 : 이영애 의원(외 찬성의원 6인)
-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 상정일자 :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운영위원회(2020년 9월 15일)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이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 금년 초부터 급속하게 국내 확산된 코로나19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기반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9월 9일 0시 기준 전국 21,588명, 대구지역은 7,088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는 연초 폭발적인 대유행 사태에 직면하여 지역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 투구한 바 최근 43일 연속 지역감염자 0명을 달성한 바 있고, 자영업자 등 위기에 처한 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음.

-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 등 근본대책이 마련되어 코로나 19가 완전 종식되기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될 뿐아니라, 재유행과 진정국면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이로 인한 시민들의 신체적 위해는 물론 코로나 블루로 대표되는 사회적 우울감의 만연, 소비위축과 실업급증,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 등 개인과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위기가 향후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방역경험을 토대로 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 시 집행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대책을 도모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나.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검토보고 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

-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나. 활동시기 및 위원수와 관련

-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수는 8대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 기간 및 사업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관련(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및 「운영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사무분장 조정」(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4276, 2019.7.9.)에 의하면,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종합의견》

- 2019년 말경 첫 보고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이 여행제한과 봉쇄조치 등 전염 억제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인류의 건강 위협은 물론 세계적 경제 침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에 특정 종교 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광범위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여 지역내 사회,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국가적 지원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 관리상태를 회복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완료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8월 중순 연휴기를 보내며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250만 시민의 보건 안전망 구축, 생계기반이 위협받는 서민들에 대한 민생지원대책, 지역경제 생태계 보호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시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필요한 대책과 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바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참고 : 1. 코로나19 대응 추진경과

1 코로나19 사건일지 (대구)

- '20. 2. 18 : 대구 첫 확진환자 발생(국내 31번 환자)
- '20. 2. 19 :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
- '20. 2. 21 :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 대구 신천지 교인 9,300여명 전수조사 및 전원 자가격리 실시
- '20. 2. 23 : 감염병 위기경보 대응단계 심각(경계→심각)단계 상향
- '20. 2. 26 :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 * 검사시간 단축, 의료진 감염 차단 효과(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10개소)
- '20. 2. 27 : 병상부족으로 입원대기중 첫 사망자 발생
- '20. 2. 29 : 1일 최대확진자 741명 발생
- '20. 3. 2 : 세계 최초 생활치료센터 운영
 - * 무증상, 경증환자 수용으로 병상운영의 효율성 확보(대구중앙교육연수원 등 15개소)
- '20. 3. 7 : 출생 연도별 마스크 5부제 시행
- '20. 3. 11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20. 3. 15 :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328운동 시작
- '20. 4. 10 : 확진자 발생이후 첫 신규 확진환자 0명
- '20.7.4~8.15 : 지역사회 감염환자 미발생(43일간)
- '20. 8. 30 : 일일 확진자 30명 발생
 - * 하루 확진환자가 30명이상 발생한 것은 4월1일 이후 152일만임.

-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5. 토론 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